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소아암등기 성금 · 헌혈증 전달  
 생명나눔 광주본부

소아암 환우들의 투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광주전남 본부(본부장 현장은) 4월 12일 2차 투병지원 기금 500만원과 헌혈증서 500매를 전남대 화순병원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성금과 헌혈증서는 무등산 문빈장사 문화광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아암 환우 돕기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펼치고 모은 성금으로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정찬호, 이명현 어린이와 환우 김봉례씨에게 헌혈액 및 성금으로 전달된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234-6602 (농협 617-01-146875 예금주: 생명나눔)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공주지원, 이정순 정구순 남흥어머니 232,950원  
 김준만 150,000원, 수지 반사자 125,300원  
 총 누적금액 40,083,72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 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등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등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잊을수 없는 역사 널리 알릴터”

발기인 40여명, '나눔의 집' 후원회 창립

“아이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 기거하고 있는 할머니들은 요즘 애가 타고 한숨이 나온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일본군에 의해 짓밟힌 기억 속에서 몸서리를 치며 아직도 그 환영과 싸우고 있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 그러나 할머니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도 학생들 앞에서 증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까닭은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일'을 후세대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 때문이다.

4월 8일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후원회(회장 이희규)가 발기인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했다.

후원회는 금전적 후원뿐만 아니라 위안부로 차별돼 해오려 끌려 나가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을 국내로 귀환하도록 돕고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과 과거사 청산 의지 결여 등을 국제 사회에 호소

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원 설립을 위해 후원단을 폭넓게 조직해야 하는 것도 후원회가 해 나가야 할 일 중 하나다.

이번에 후원회가 창립된 것은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할머니 중 생존자가 120여명에 불과한 현실 때문. 게다가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발뻠하고 있는 것이 할머니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서 개별 후원자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다 죽으면 역사도 잊혀 집니다. 그 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해주었으면 해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후원회에 바라는 것은 한결 같다. 후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기르고, 우리의 참혹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양자서 달라는 것이다.

나눔의 집 안신권 국장은 “할머니들의 짓밟힌 역사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그들이 겪은 일을 알려야 한다”며 “지금이나 바로 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031)768-0064

김강진 기자



“할머니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수련관 강당에서는 4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후원회가 발족했다.

안국선원, 산불 피해주민돕기 의류 기탁

(재)안국선원 신도회(회장 무량심)가 4월 13일 본사에 양양 산불 재해지역 주민돕기 물품으로 의류 약 400여점을 기탁했다(사진).

안국선원이 기탁한 의류는 원피스, 투피스, 자켓, 바지, 치마, 스웨터 등 총 477벌로 2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안국선원 신도회는 “양양 산불로 집이 불타버려 생활품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옷을 준비하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사는 기탁받은 의류를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강원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굽고 튀기고, 무치고,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도시락을 책임지는 '월요일 오후 봉사팀'. 4월 12일에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도봉서원종합복지관 도시락 봉사팀

밥맛 반찬맛 사랑의 맛이에요

4월 12일 화요일 오후, 서울 도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 4층 식당에는 쫄면 나물과 된가스, 계란말이 등의 반찬을 준비하는 바쁘게 움직이는 1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봉구 관내의 거동하지 못하는 독거노인 120여 가구의 끼니를 책임질 '귀한 음식' 들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봉사팀은 이름이 없다. 애당초 봉사팀을 조직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모인 이들을 복지관과 이용자들이 '월요일 오후봉사팀'이라고만 부른다.

'월요일 오후 봉사팀'에는 복지관이 개관한 2000년부터 도시락 봉사를 해 온 이순례(70) 보살과 박미자(57) 보살을 비롯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 무엇보다 행(行)이 중요한 것을 느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김광숙(58)·박경자(55) 보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다 자신도 봉사활동을 하

고 싶어 2년 전부터 직접 반찬 준비에 나선 권정숙(71) 보살 등 저마다 다른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이 모여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한 윤영주(43) 보살까지 합세했다.

“규율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 보다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더 신명나는 법이잖아요.”

윤 보살의 말처럼 봉사 경력도, 소속도 다른 이들이 하나 둘 모여 봉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불자라는 점과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다는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 매주 맛난 반찬을 만들어 낸다. 반찬 준비를 하는 손길이 바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봉사의 의미를 곱씹는 것도 이들에게는 소중한 일이다.

“우리는 집에서 하던 일이 밖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란 그저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김강진 기자

수건·티셔츠 후원해 주세요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서는 '아버이 날'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5월 6일 '지역 어르신 축제한마당'을 개최한다.

'월요일 오후 봉사팀'은 '복지관 측에

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지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건이나 티셔츠 같은 것을 후원받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고 살짝 귀띔했다. (02)3494-4755-6

나눔의 손잡기 <등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 인터넷 홈페이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웰빙가구의 대명사 - 국부대청마루 www.doyemaru.co.kr

# 우리나라 육송으로 장인이 만든 명품 청마루 국부대청마루 할인전

자연의 향기와 숨결로  
 심신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 **소재**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인 육송(춘함목) 사용

▶ **사용**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  
 (예) 차탁, 거실의 장식, 소파의 받침, 학생 공부상, 개인 침대, 책상, 수납장 등

▶ **사용법**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 베이비오일)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골동품 만들어나가는 과정 - 대물림이 가능.)

▶ **육송 좌탁**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1200x600x300 (小)	450,000	300,000
1350x700x300 (中)	550,000	400,000
1600x800x300 (大)	650,000	500,000
1800x800x300 (特大)	750,000	600,000

▶ **육송 다도차상 특별판매 (한정 20점)**

▶ **규격(mm) : 760x460x220**  
 ▶ **특판가(원) : 250,000 → 150,000**

▶ 육송다도차상은 완전 수공 짜맞춤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소장의 가치를 느껴보십시오!!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 농협 121065-56-059022(예금주:윤두영)

\*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라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대청마루 안쪽의 <국부육송> 낙관을 꼭 확인하십시오.

모서리 측면 육송결